

“각박한 세상, 詩라는 꿈을 꾼니다”

광주 출신 조운운 시인

두번째 시집 ‘자꾸만 꿈만 꾸자’ 펴내
현실-비현실 균형점 찾는 과정 그려

광주 출신이자 조선훈 문장과를 졸업한 조운운 시인은 그동안 ‘공통점’ 문학동인으로 활동했다. 문우들과 문학무크지 ‘공통점’을 발간하며 젊은이 특유의 감각과 시각이 담긴 작품을 엮어냈다. 특히 “우리는 문학을 통해 같은 통점이 된다”는 모토를 내걸고 다양한 세대의 독자와 소통하는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가 최근 두 번째 시집을 펴냈다. ‘문학동네시인선 231’로 출간된 ‘자꾸만 꿈만 꾸자’는 “현실과 비현실 같은 두 가지 성질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전화상으로 다소 감이 먼 듯해서 물었더니, 현재 조 시인은 경기도 화성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직장도 거처를 구해 지내는 중”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렸다.

“곧 새 가정을 꾸리게 돼 한동안은 서울과 화성을 오가며 생활하게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시인들과 화가들이 서로 시와 그림을 가르쳐주는 모임을 1년 반 남짓 함께했죠. 그때 쓴 시들이 이번 시집에 여럿 실렸습니다.”

그는 “재작년에 광주를 떠나 연희문학창작촌에 입주하며 서울살이를 시작했다”며 “언젠가는 고향인 광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조 시인은 “수도권에서의 생활이 ‘한동안’이 될 거라”고 했다. “여러 계기와 변화로 고향을 떠나 있지만, 제 문학의 산실이자 가장 편안한 정서를 느끼는 곳이 광주”라는 말에서, 언젠가 시인은 ‘언어’처럼 회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역 문학을 이끌어갈 전도유망한 문학청년이



광주 출신 조운운 시인이 최근 시집 ‘자꾸만 꿈만 꾸자’를 발간했다.

광주를 떠나 수도권에 거주하며 생계와 창작을 병행하는 현실은 기대 반, 안타까움 반으로 다가왔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가는 현실이 예술 분야에서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다.

조 시인은 광주에 있을 때 문학동인 공통점 친구들과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시 낭독을 모티브로 한 연구도 진행하고 시인들 육성을 담은 시 낭독 웹사이트와 음원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낭독 시집 ‘활자낭독공간’(공통점)은 2024년도 문학나눔도서 보급사업의 추천 도서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통점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인 라이브러리 피치와 공동기획으로 느린학습자 대상의 시 창작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분들은 시의 기본적인 문법과 재미를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저 또한 문식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가 지나는 가치가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죠. 올해도 공통점은 라이브러리 피치와 함께 광주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 창작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구요.”

조 시인은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읽히고 공명하는 시를 상정한다. 물론 불가능에 가깝지만 “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이나 성별, 세대 같은 경계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

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 창작의 초점을 두고 싶다”는 것은 이번 시집 해설을 쓴 양경언 평론가의 ‘중도’라는 의미와도 일정 부분 연계된다.

이번 표제작 ‘자꾸만 꿈만 꾸자’는 매력적인시다. 실패와 넘어짐이 많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도 자꾸 꿀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꾸만 꿈만 꾸자’는 거꾸로 읽어도 똑 같이 읽히고 의미도 동일하다는 점은 사뭇 이색적이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어도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회자정리’라고, 우리는 모두 만남에서 헤어짐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게 마련이죠. 어쩌면 결말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알고 절망하기보다 같이 있으니 현재를 긍정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노인으로 태어나/ 아기가 되어 죽는 시계공의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보았어// 노인이든 갓난아이는 그는/ 약하고 가여워질 뿐/ 바뀌는 건 없었지// 거꾸로 도는 시계에도 정각이 있듯/ 있던 일은 없는 일로/ 없던 일은 있는 일로 나아갈 뿐// (후략)”

시인의 말대로, 쉽게 읽히지만 그 의미는 각별하다. “문턱이 낮은 시를 쓴다”는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시집을 엮으며 구조가 복잡하거나 감추는 식으로 무언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적 하지 않으려 했다”며 “매체가 다양해지며 문학 독자가 줄고 있지만, 언어를 안다면 누구나 창작자와 향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학은 가장 보편적인 예술”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율여름에는 공통점 동인의 첫 동인시집이 출간될 예정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내년이면 공통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꼬박 10년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첨언했다. “시가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가 우연히 얻게 된 길몽이 됐으면 해요. 물론 길몽의 대가는 그저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면 족하구요. 때문에 ‘입춘대길’이나 부적을 붙여놓듯이, 용꿈이나 돼지꿈을 마음에 품고 지내듯이, “시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삶이 희망과 긍정의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대 오른 청소년들의 ‘꿈’

삶디센터, 방과후 프로젝트 ‘N개의 방과후 상반기 쇼케이스’ 성료



삶디센터에서 지난 5일 ‘N개의 방과후 상반기 쇼케이스’가 열렸다. 계절요리 미식회 참여자들의 모습. <삶디센터 제공>

청소년들의 일상 너머에 작은 무대가 펼쳐졌다. 꿈을 향해 조심스레 내딛는 발걸음이 패션쇼가 되고, 전시가 되고, 음악이 됐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센터)가 지난 5일 랄랄라홀에서 청소년 방과후 프로젝트 ‘N개의 방과후 상반기 쇼케이스’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고등학교생 60여명이 참여해 패션쇼,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지난 3개월간 진행된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생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탐색과 창작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험적 방과후 프로젝트로, 광주교 육청교육연구원과 함께 9년째 협력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목공, 요리, 패션, 웹툰, 음악, 영상 등 여섯 개 분야의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활동을 마친 60여 명의 청소년 참가자들은 이날 무대에서 그간의 성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나무를 다듬고 삶을 담아낸 생활가구 전시, 감

각적인 계절 요리를 직접 만든 미식회, 창작 웹툰을 통해 이야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 전시, 자작곡 공연과 단편영화 상영, 그리고 청소년 모델들이 런웨이를 누빈 패션쇼까지 각양각색의 표현이 이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관객들은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발표에 놀랐다”, “웹툰이나 영상 같은 결과물에 청소년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인상 깊었다”는 등의 감상을 전했다.

한선미 삶디센터 팀장은 “이번 쇼케이스는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경험을 재구성한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해나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는 8월 중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삶디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수필’ 81호 나왔다

수필문학회 창설 멤버 장정식 고문 추모 글·회원 수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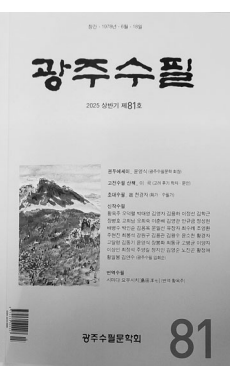
광주수필문학회(회장 윤영식)가 올해 상반기 작품집 ‘광주수필’ (통권 81호)을 펴냈다.

지난 1978년 창간된 광주수필은 4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 수필문학을 풍성하게 일구는 뒷받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호에는 광주수필문학회 창설 멤버였고 광주수필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했던 장정식 고문을 추모하는 글이 실렸다. 황옥주 전 회장이 장 고문의 삶과 문학을 추모하는 글을 게재했다.

초대 수필에는 고을 출신 천경자 화가의 수필 ‘눈썹’이 실렸다. 전통 채색화 기법을 토대로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구현했던 천경자는 수필가로도 활동했다. 다른 초대 수필로는 고려시대 대선배 문인의 수필을 통해 오늘의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이색의 선친 이곡의 ‘차마설’을 소개했다.

오덕철 수필가는 ‘한국수필 창간’에 대한 단상과 그동안의 여정을 담은 글을 실었다. 오 수필가는 “미래의 독자들은 시보다는 길고 소설보다는 짧으며 시와 소설 장점을 갖춘 ‘창작수필’을 찾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는 ‘창작수필’이 노벨문학상을 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회원수필로는 김영자, 이춘배, 김영관, 윤소천, 윤영식, 장봉화, 이상인 작가 등의 작품이 소개됐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지난해 펼쳐졌던 문학기행, 임원진 주요 행사, 회원 동정을 담은 사진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윤영식 회장은 “노벨문학상이 긴 세월 우리 문학에 눈길을 주지 않다가 비로소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 라틴어의 바다에서 한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

2006년생, 연말까지 사용

올해 19세가 된 2006년생 청년들을 위한 문화지원 혜택이 다시 한번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7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추가 발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9세인 2006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상반기에 이미 해당 패스를 발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번 추가 발급은 상반기 미사용자 환수 포인트를 활용한 것으로, 총 15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관람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배정된 인원 한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인터파크, 예스24 등 제휴 플랫폼에서 예매 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여름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할인 혜택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뉴욕의 거장들 전’이다. 오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현대미술사의 중심에 선 미국 뉴욕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이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 용자에게 30~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전시는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고품격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국립발레단의 ‘인어공주’·지젤·호두까기 인형·국립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의 공연들도 할인 대상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국밥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국밥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